

중2-1
국어
미래엔(민)

2027 중2-1 국어 미래엔(민) | 3(1) 음운 체계와 문자 체계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이 단원에서는 국어의 음운 체계와 문자 체계를 탐구하며 말소리와 문자의 관련성을 이해하여 일상 생활에서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음운과 문자의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 국어의 음운 체계와 문자 체계를 이해하는 문제 등이 출제됩니다. 나아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중심으로 한글의 특성과 가치를 탐구하며 한글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1.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보기> —————
(㉠) (이)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의 가장 작은 단위이고, (㉢) (이)란 언어를 적는 데 사용하는 시각적인 (㉣) 체계이다.

	㉠	㉡	㉢	㉣
①	음운	소리	문자	기호
②	음운	기호	문자	소리
③	문자	소리	음운	기호
④	문자	기호	음운	소리
⑤	음운	단어	문자	형태

2. 다음 중 한 개의 음운 차이로 뜻이 달라지는 단어의 쌍이 아닌 것은?

- ① 방 - 강
- ② 물 - 말
- ③ 집 - 짐
- ④ 오리 - 고리
- ⑤ 실 - 솔

3. <보기>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단어에 사용된 음운의 개수가 다른 하나는?

————— <보기> —————
국어의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 등이 있다. 음절의 처음 소리인 자음을 ‘초성’, 중간 소리인 모음을 ‘중성’, 마지막 소리인 자음을 ‘종성’이라고 하는데, 자음 ‘ㅇ’은 초성에 오지 못한다.

- ① 고양이
- ② 오징어
- ③ 지우개
- ④ 가오리
- ⑤ 도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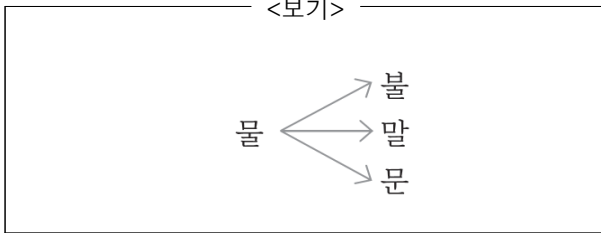
4. <보기 1>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보기 2>의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보기 1> —————
모음과 자음뿐 아니라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뜻이 구별되기도 한다.

————— <보기 2> —————
㉠ 밤[밤]: 해가 저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의 동안.
㉡ 밤[밤 :]: 밤나무의 열매.

- ① ㉠은 짧게 발음한다.
- ② ㉡은 길게 발음한다.
- ③ ㉠과 ㉡은 초성, 중성, 종성에 쓰인 자음과 모음이 모두 일치한다.
- ④ ㉠과 ㉡은 자음과 모음의 종류 차이로 단어의 뜻이 구별되고 있다.
- ⑤ ㉠과 ㉡의 사례를 통해 소리의 길이도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음운임을 알 수 있다.

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ㄱ’, ‘ㅂ’, ‘ㄷ’, ‘ㄱ’, ‘ㄴ’은 모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소리의 단위이다.
- ② ‘물’과 ‘불’은 자음 하나의 차이로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이다.
- ③ ‘물’과 ‘말’의 의미 차이는 모음 ‘ㅜ’와 ‘ㅏ’에서 비롯된다.
- ④ 자음인 ‘ㄱ’과 ‘ㅂ’은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다.
- ⑤ 제시된 단어들을 이루는 각 소리들은 모두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이다.

6. <보기>의 단어와 초성, 중성, 종성이 각각 한 개씩 다른 단어 세 개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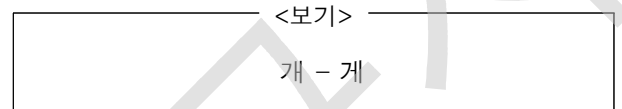
- ① 불 - 말 - 문
- ② 발 - 밀 - 목
- ③ 풀 - 뽕 - 뭇
- ④ 돌 - 물 - 무
- ⑤ 굴 - 달 - 문

7.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이다.
- ② 국어의 단모음은 총 10개이며, 발음 도중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된다.
- ③ 국어의 이중 모음은 총 11개이며, 발음 도중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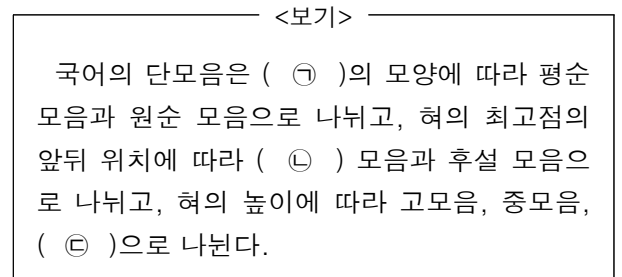
- ④ 단모음은 혀의 높낮이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 ⑤ 모음은 홀로 소리 날 수 있어 반드시 자음이 있어야만 글자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8. <보기>에 제시된 두 단어를 원칙대로 발음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개’의 ‘ㄱ’은 ‘게’의 ‘ㄱ’보다 입술을 더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해야 한다.
- ② ‘개’의 ‘ㅐ’는 고모음이므로 ‘게’의 ‘ㅔ’보다 혀의 위치를 더 높게 해서 발음해야 한다.
- ③ ‘개’의 ‘ㅐ’는 ‘게’의 ‘ㅔ’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 혀의 위치를 낮추어서 발음해야 한다.
- ④ ‘게’의 ‘ㅔ’는 후설 모음이므로 ‘개’의 ‘ㅐ’보다 혀의 최고점을 뒤로 하여 발음해야 한다.
- ⑤ ‘게’의 ‘ㅔ’는 이중 모음이므로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을 바꾸면서 발음해야 한다.

9. <보기>의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
①	입술	전설	반모음
②	입술	전설	저모음
③	혀	전설	반모음
④	혀	중설	저모음
⑤	혀	중설	반모음

10.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음이 사용된 단어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
•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의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모음
•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중간인 모음

- ① 구두
- ② 바다
- ③ 어른
- ④ 개미
- ⑤ 포도

11.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종류의 모음이 쓰인 단어끼리 묶인 것은?

- ① 비 - 숲
- ② 배 - 게
- ③ 소 - 달
- ④ 눈 - 밤
- ⑤ 새 - 쥐

12. <보기>의 단어에 쓰인 모음을 모두 찾고, 발음할 때 공통적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도구, 우주, 구조

- ① ㄱ, ㄷ -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내는 원순 모음이다.
- ② ㄱ, ㄷ -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다.
- ③ ㄱ, ㅡ - 발음할 때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내는 평순 모음이다.
- ④ ㄷ, ㅡ -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가장 낮은 저모음이다.
- ⑤ ㄱ, ㅌ -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이다.

13.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음이 쓰인 단어가 아닌 것은?

<보기>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의 중간 부분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모음

- ① 개구리
- ② 지우개
- ③ 호두알
- ④ 뷔페식
- ⑤ 참외밭

14. 국어의 단모음 10개를 <보기>와 같이 ㉠, ㉡으로 나누었을 때 그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 ㅣ, ㅐ, ㅑ, ㅓ, ㅕ
㉡ ㅡ, ㅜ, ㅗ, ㅛ, ㅝ

- ①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가
- ② 소리를 낼 때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는가
- ③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가 뒤쪽에 있는가
- ④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은가 낮은가
- ⑤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가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음운(㉠)이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고, 문자(㉢)란 언어를 적는 데 사용하는 시각적인 기호(㉣) 체계이다. 알맞게 연결된 것은 ①이다.

②, ③, ④, ⑤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다.

2. [정답] ④

초성에 오는 ‘ㅇ’은 소릿값이 없는 빈자리이므로 음운으로 치지 않는다. 따라서 ‘오리’의 음운은 ‘ㅇ, ㄹ, ㅣ’ 3개이고, ‘고리’의 음운은 ‘ㄱ, ㄴ, ㄹ, ㅣ’ 4개이다. 따라서 두 단어는 같은 위치에 있는 음운 하나가 교체되어 뜻이 달라지는 단어의 쌍(최소 대립쌍)이 될 수 없다.

- ① ‘방’과 ‘강’은 초성에 쓰인 자음 ‘ㅃ’과 ‘ㄱ’이라는 한 개의 음운 차이로 뜻이 구별된다.
- ② ‘물’과 ‘말’은 중성에 쓰인 모음 ‘ㅓ’와 ‘ㅗ’라는 한 개의 음운 차이로 뜻이 구별된다.
- ③ ‘집’과 ‘짐’은 중성에 쓰인 자음 ‘ㅈ’과 ‘ㄷ’이라는 한 개의 음운 차이로 뜻이 구별된다.
- ⑤ ‘실’과 ‘술’은 중성에 쓰인 모음 ‘ㅣ’와 ‘ㅗ’라는 한 개의 음운 차이로 뜻이 구별된다.

3. [정답] ⑤

‘도라지’는 ㄷ, ㄴ, ㄹ, ㅈ, ㅊ, ㅣ 총 6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① ‘고양이’는 ㄱ, ㄴ, ㅕ, ㅇ, ㅣ 총 5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② ‘오징어’는 ㄴ, ㅈ, ㅣ, ㅇ, ㄹ 총 5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③ ‘지우개’는 ㅈ, ㅣ, ㅊ, ㄱ, ㅐ 총 5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가오리’는 ㄱ, ㅈ, ㄴ, ㄹ, ㅣ 총 5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4. [정답] ④

㉠과 ㉣은 자음과 모음의 종류는 완전히 동일하며,

오직 ‘소리의 길이(장단)’ 차이로만 단어의 뜻이 구별되고 있으므로 알맞지 않은 설명이다.

- ① 시간의 의미를 지닌 ㉠은 긴소리 부호가 없으므로 짧게 발음하는 것이 맞다.
- ② 먹는 열매를 뜻하는 ㉣은 긴소리 부호가 있으므로 길게 발음하는 것이 맞다.
- ③ ㉠과 ㉣은 모두 초성 ‘ㅃ’, 중성 ‘ㅈ’, 종성 ‘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쓰인 자음과 모음이 일치한다.
- ⑤ ㉠, ㉣을 통해 자음과 모음뿐만 아니라 소리의 길어도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비분절 음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정답] ④

자음인 ‘ㄹ’과 ‘ㅃ’은 폐에서 나온 공기의 흐름에 방해(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이므로 알맞지 않다.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는 모음이다.

- ① 제시된 단어들을 이루는 자음과 모음(ㄹ, ㅃ, ㅈ, ㅊ, ㄴ, ㄹ, ㅊ)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인 음운이므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 ② ‘물’과 ‘불’은 중성 ‘ㅊ’과 종성 ‘ㄹ’은 같고, 초성인 ‘ㄹ’과 ‘ㅃ’ 자음 하나만의 차이로 뜻이 달라진다.
- ③ ‘물’과 ‘말’은 초성 ‘ㄹ’과 종성 ‘ㄹ’은 같고, 중성인 ‘ㅊ’과 ‘ㅈ’ 모음 하나의 차이로 뜻이 달라진다.
- ⑤ 음운은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같은 소리라고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이다.

6. [정답] ①

‘물(ㄹ+ㅊ+ㄹ)’과 비교했을 때, ‘불’은 초성만 다르고(‘ㄹ’→‘ㅃ’), ‘말’은 중성만 다르며(‘ㅊ’→‘ㅈ’), ‘문’은 종성만 다르다(‘ㄹ’→‘ㄴ’).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에 정확히 부합한다.

- ② ‘발’은 ‘물’과 비교해 초성(‘ㅃ’)과 중성(‘ㅈ’) 두 가지가 모두 달라 조건에 맞지 않는다.
- ③ ‘풀’과 ‘뿔’은 모두 ‘물’과 비교해 초성만 다른 단어이다. 중성이 다른 단어가 제시되지 않았다.
- ④ ‘돌’은 ‘물’과 비교해 초성(‘ㄷ’)과 중성(‘ㅊ’) 두 가지가 모두 다르다.
- ⑤ ‘달’은 ‘물’과 비교해 초성(‘ㄷ’)과 중성(‘ㅈ’) 두 가지가 모두 다르다.

7. [정답] ④

단모음을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누는 기준은 혀의 높낮이가 아니라 '입술 모양'이므로 알맞지 않다.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눈다.

①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입안의 발음 기관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가 모음의 정확한 정의이다.

② 국어의 단모음은 총 10개(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며,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고정된다.

③ 국어의 이중 모음은 총 11개(ㅘ, ㅙ, ㅚ, ㅝ, ㅞ, ㅟ, ㅠ, ㅡ, ㅢ, ㅤ, ㅥ)이며,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

⑤ 자음은 홀로 소리 날 수 없지만, 모음은 홀로 발음될 수 있어 반드시 자음이 없어도 글자(음절)를 이룰 수 있다.

8. [정답] ③

'ㅐ'는 저모음, 'ㅔ'는 중모음이다. 저모음인 'ㅐ'를 발음할 때는 중모음인 'ㅔ'를 발음할 때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야 하며, 그 결과 혀의 위치도 더 낮아지므로 적절하다.

① 'ㅐ'와 'ㅔ'는 모두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평평하게 펴서 발음하는 평순 모음이므로 둥글게 오므린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ㅐ'는 저모음이고 'ㅔ'는 중모음이므로, 'ㅐ'를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더 낮다.

④ 'ㅐ'와 'ㅔ'는 모두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입안의 앞쪽에 위치하는 전설 모음이므로 후설 모음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⑤ 'ㅔ'는 발음 도중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단모음이다.

9. [정답] ②

국어의 단모음은 입술(ㄱ)의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뉘고,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에 따라 전설(ㄴ)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뉘고,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ㄷ)으로 나뉜다. 따라서 ②가 적절하다.

①, ③, ④, ⑤ 알맞게 나열되지 않았다.

10. [정답] ③

'어른'의 '어'에 쓰인 모음 'ㅓ'는 입술을 평평하게 하는 평순 모음, 혀의 최고점이 뒤에 있는 후설 모음, 혀의 높이가 중간인 중모음이다. <보기>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이 사용되었다.

① '구두'에 쓰인 모음 'ㅜ'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원순 모음이며, 혀의 최고점이 뒤에 있는 후설 모음, 혀의 높이가 높은 고모음이다.

② '바다'에 쓰인 모음 'ㅏ'는 평순 모음, 후설 모음이지만 혀의 높이가 낮은 저모음이다.

④ '개미'에 쓰인 모음 'ㅐ', 'ㅣ'는 모두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다.

⑤ '포도'에 쓰인 모음 'ㅗ'는 후설 모음, 중모음이라는 조건은 충족하지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원순 모음이다.

11. [정답] ①

'비'에 쓰인 'ㅣ'와 '숲'에 쓰인 'ㅜ'는 모두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고모음이다.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같은 종류의 모음이 쓰였다.

② '배'의 'ㅐ'는 저모음, '게'의 'ㅔ'는 중모음이므로 혀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

③ '소'의 'ㅗ'는 중모음, '달'의 'ㅏ'는 저모음이므로 혀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

④ '눈'의 'ㅜ'는 고모음, '밤'의 'ㅏ'는 저모음이므로 혀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

⑤ '새'의 'ㅐ'는 저모음, '취'의 'ㅑ'는 고모음이므로 혀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

12. [정답] ①

'도구, 우주, 구조'에 공통으로 쓰인 모음은 'ㅗ'와 'ㅜ'이다. 이 두 모음은 모두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내는 원순 모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제시된 단어의 모음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했다.

② 'ㅗ'와 'ㅜ'는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 중간을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다. 전설 모음이라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

③ 제시된 단어들에 모음 'ㅡ'는 쓰이지 않았으며, 'ㅗ'와 'ㅜ'는 평순 모음이 아니라 원순 모음이다.

④ 'ㅡ'는 쓰이지 않았고, 'ㅜ'는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고모음이다. 저모음이라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

⑤ ‘ㅏ’는 쓰이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정답** ③

‘호두알’에 쓰인 모음 ‘ㅏ, ㅓ, ㅑ’는 모두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다. 전설 모음이 하나도 쓰이지 않았다.

- ①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음은 ‘전설 모음(ㅣ, ㅔ, ㅖ, ㅓ, ㅑ)’이다. ‘개구리’에는 전설 모음 ‘ㅔ’와 ‘ㅣ’가 쓰였다.
- ② ‘지우개’에는 전설 모음 ‘ㅣ’와 ‘ㅔ’가 쓰였다.
- ④ ‘뽕페식’에는 전설 모음 ‘ㅓ, ㅔ, ㅣ’가 쓰였다.
- ⑤ ‘참외밭’에는 전설 모음 ‘ㅑ’가 쓰였다.

14. **정답** ③

㉠의 ‘ㅣ, ㅔ, ㅖ, ㅓ, ㅑ’는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고, ㉡의 ‘ㅡ, ㅓ, ㅑ, ㅓ, ㅏ’는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다. 따라서 이 분류의 기준은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이다.

- ①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가를 기준으로 하면 원순 모음(ㅜ, ㅠ, ㅡ, ㅓ)과 평순 모음(나머지)으로 나뉘므로 ㉠, ㉡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다.
 - ② 소리를 낼 때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는가는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 ④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은가 낮은가를 기준으로 하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세 가지로 나뉘어야 한다.
 - ⑤ 발음하는 도중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가는 단모음과 이중 모음을 나누는 기준이다.
- <보기>의 모음 10개는 모두 단모음이다.